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4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 공동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파스한 햇살로 논밭의 오희백과를 영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과 허영으로 들떠있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한 가을 바람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살찌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여물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마다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신종 플루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약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약만 찾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연의 못 생명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대하는 삶의 방식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위로의 말씀 마5:3,4

♠ 교 독 문 39. 시편95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오재환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 양 182(통169).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경봉독 I. 창15:1-6

II. 막1:1-8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김재홍 목사

II.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찬 송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으며 사십시오. 그분이 나아가실 길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나의 성공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만 관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시는 역사의 징검다리에서 작은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모임	성경공부 : 이사야
찬양인도 : 장성호	기도: 정경례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방문성 장로	최명하 학생 진정숙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두석 김대근 문영혜 이건화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북극이 방귀를 끼는 날

요한묵시록에 따르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는 일곱 개의 봉인이 뜯어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온갖 재앙이 닥쳐온다. 신약성경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세계의 멸망을 상상했다. 장엄하고 비장한 문체로 서술된 요한묵시록은 이후 세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의 모습은 그러한 엄숙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닥쳐올지도 모른다. 북극 해저에서 메탄가스가 분출되는 현상이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방귀의 성분인 바로 그 메탄가스 말이다.

북극이 방귀를 끼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르웨이 인근 해협에서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응고된 메탄이 기화해 강력한 기포가 발생한 사실이 관측 되었다고 한다. 적당한 양의 물속에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를 넣으면 하얀 기포가 생겨난다.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응고되었던 이산화탄소가 기화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메탄가스 자체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강력한 온실가스일 뿐 아니라, 물속에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해양의 산성도를 높인다는 데 있다. 이것은 해양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용존산소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수질 또한 돌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발견된 것은 메탄이 응고되어 있던 수심 400m 지역의 수온이 1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및 기온 상승을 경고할 때 ‘온난화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렇게 적은 온도 변화로는 지구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관측 결과는 사태의 진행이 그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저지른 사소한 행동이 더 큰 결과를 불러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이 방귀를 끼기 시작하면, 즉 북극해 일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기화해 용해되거나 대기 중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 온난화의 속도는 인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그것이 분출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이다. 게다가 해수에 메탄이 용해되면서 해양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해수의 온도가 1도 상승한 결과 본래 안정적이었던 해저 400m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기화하기 시작했다. 즉 메탄 분출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메탄 분출을 불러온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누군가 방귀를 끼기 시작하면 다들 경쟁적으로 끼어대는 광경을 연상할 수 있겠다.

북극이 방귀를 끼는 날, 인류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존속을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촉발되느냐 아니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난화 회의주의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논지를 즐겨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팔자 좋은 논의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모든’ 생물이 멸종할 수 있을 만한 온난화가 야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북극해저에 녹아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을 정도의 온도 변화만 제공해도 충분하다. 고작 그만큼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대기권과 해양의 온도 균형은 뒤흔켜버릴 수 있다. 한 번 비탈길로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천사가 봉인을 뜯고 나팔을 부는 광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북극이 젖소처럼 방귀를 끼게 될 것이다. 지독한 메탄가스가 부글거리며 해수면 위로 솟구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 묘사하건 그 결과는 같다. “그리하여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게 되는 것이다. 묵시록적 결말의 도래를 막기 위해, 인류는 지구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 마/음/으/초/워/는/글

신종 플루에 대한 대처

- 공동생활 등에서 지켰으면 하는 항목들 -

- 외출 후 귀가하면 손발, 얼굴, 목을 깨끗이 씻는다.
- 손은 기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씻는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을 가려 기침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 감잎차를 오전 중에 한두 컵 마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다.
- 과식, 과로, 과음, 흡연을 피한다.
- 곡채식, 해조류, 생선을 중심으로 골고루 먹고 생명밥상을 실천한다.
- 고추가루, 마늘, 양파, 파, 생강을 적절히 섭취한다.
- 풍욕과 냉온욕을 꾸준히 하면 피부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증강된다.
-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생활주변을 잘 정리하고 자기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 사람이 드문 시간, 드문 길로 지혜롭게 산책하고 운동한다.
- 전세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중보기도를 실천한다. 기도는 자신과 인류의 면역을 키우는 힘이다.

(수유리 '아름다운마을 공동체'의 홈페이지에서 부분 인용)

- 가급적 개인 손수건과 컵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경연	김일랑	이은옥	김지호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방민	배삼순	권호진	조병무	송양진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이봉옥	임고운	임영	정경례	정미경	정복순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방준	왕성환	강순배	김윤숙	조현권	유상진
신태진	정부자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지현	김지은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왕수명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이소순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백성래	임원민	임수연	최윤희	한성건	최동운	박찬정	

감사헌금:

권혁신	김윤숙	정복순	윤주원	최윤선	조관행	홍선희	문홍일	김윤철
신혜원	김용진	박효선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경숙

녹색꿈 헌금: 윤정덕 구성실 이재문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장혜숙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심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1시 30분부터 모여 함께 찬양합니다.
2. **이사야서 공부** : 수요집회에서 4주간에 걸쳐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김재흥 목사가 인도합니다.
3. **성서학당** : 가을학기 성서학당이 이번 주 10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4. **신앙다지기** : 이번 주 12일(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신앙다지기 5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5. **청파산악회** : 12일(토요일)에 축령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고 산 입구에서 10시에 모입니다.
6. **가방만들기** : 다음 주 오후 동호회 때 환경부가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폐현수막으로 가방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환경부로 신청해주세요.
7. **방문** : 8일(화요일) 오전 9시에 예장 서울서노회 사회봉사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8. **주차** :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우는 일을 자제해주시요. (장애인 차량은 예외)
9. **신앙실천** :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우리교회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 커피.떡 : 김자경 정성욱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갈릴리 속)

* 설거지 봉사 : 광상준 최경미 (다음 주 : 박병구 윤종권 박권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